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중대정책들을 토의결정
조선
주체110
(2021)
7
(780)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기념편집

오늘의 조선

체육

자연

천연기념물

력사

16

편집: 신재철, 김정철, 서철남, 김규성, 승 룡

표지: 전승의 날을 맞으며 사진: 리광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회의들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가 6월 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포치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실태를 중간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절실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국가적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상반년도 주요정책들의 부문별 집행실태를 개괄분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시점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상반년도 국가사업전반실태를 정확히 총화하여 편향적인 문제들을 제때에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성된 대내외정세하에서 당과 정부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걸머지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 국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전원회의에 제기할 안건들에 대하여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하였다.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동지, 김덕훈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장들, 각 도당책임비서들이 협의회에 참가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올해 하반년도 주요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실태를 부문별로 집중점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하여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료해검토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포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각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영예로운 책무를 다함에 헌신분투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여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대책적 문제와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확대회의가 6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주변정세와 조선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였으며 조직문제가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인민군대사업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당과 혁명사업, 국가와 인민의 리익, 사회주의건설을 보위하는 신성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건설로선과 방침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글 최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주체110(2021)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전당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첫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진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당과 국가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비등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조선혁명 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최대로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의 정책적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는것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기본취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토의할 의정들을 제의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상정된 의정들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상반년기간 주요정책적과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실태자료와 당적, 국가적으로 시급히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이 보고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첫째 의정토의에서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과 단위들의 상반년기간 사업정형을 상세하게 분석총화

하시고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룩하며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부문별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마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분투하여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빛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를 둘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가 셋째 의정으로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는 부문별 분과들의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고 올해 시달된 주요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추가대책들을 반영한 결정서와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결정서를 일치가결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조선로동당의 대응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근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주되는 변화들과 조선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평가를 내리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관한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과 원칙들을 표명하시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능동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현 실정에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중대정책들을 토의결정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있는 위민헌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여주고 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려는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사항이라고 언명하시면서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여섯째 의정으로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총비서동지의 제기를 크나큰 충동과 격정속에 심의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속에 관련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일곱째 의정으로 당중앙지도기관성원

들의 2021년 상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하여 총화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도기관 성원들이 상반년기간 나타난 결함들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대회가 높이 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더욱 각성분발하여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에 있는 힘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혁명의 전투적참모부, 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데서 앞장에 서야 할 사람들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주요정책적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실행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칠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여덟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혁명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더 엄혹한 시련이 막아나서도 추호의 변심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는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시였다.

전원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특출한 예지와 통찰력, 불철주야의 사색과 헌신으로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줄기차게 인도하는 불멸의 지침과 위력한 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시고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고무적힘을 안겨주신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우렁찬 박수와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글 최광호

«Ил - 14»비행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돐을 맞으며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에서는 «Ил - 14»비행기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선물로 삼가 드리였다.

주체47(1958)년 9월 8일 쏘련의 당과 정부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외국수반들에게 선물로 줄것을 결정하고 제작한 3대의 특별비행기중에서 1대를 제일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에서 드린 선물
주체47(1958)년 9월 8일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5월

오랜 세월 재난의 강, 눈물의 강으로 불리우던 보통강을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평양시민들은 보통강개수공사를 단 55일동안에 끝내였다.

보통강반의 새 력사가 흘러 75년

평양시의 서부지구를 감돌아흐르는 보통강은 대동강과 함께 평양의 유구한 력사를 담고있다.

길이가 130여리에 달하는 보통강은 상류를 제외하고는 거의나 평탄한 벌판을 거쳐 대동강에 합수되는데 주변의 지대가 낮은것으로 하여 한겻만 비가 내려도 물이 넘어나군 하였다.

해방(1945. 8. 15.)전까지만도 물란리로 거의 해마다 피해를 입었던 평양지구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다음에야 달라지게 되였다.

해방후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들을 추진시키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일대를 돌아보시고 보통강개수공사를 친히 발기하시였으며 주체35(1946)년 5월 21일 착공식장에 몸소 나오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고 공사의 첫삽을 뜨시였다.

보통강반에 전변의 새 력사를 펼치려는 평양시민들의 드높은 열의에

해방(1945. 8. 15.)전 조금만 비가 와도 피해를 입군 하던 보통강

의해 공사는 불과 5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여 이 지역에서의 큰물 피해는 영영 사라지게 되였다.

그후 1950년대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이 일대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휴식터로 전변되였다.

본래의 강자리에 형성된 운하를 따라 300여정보에 달하는 보통강 유원지가 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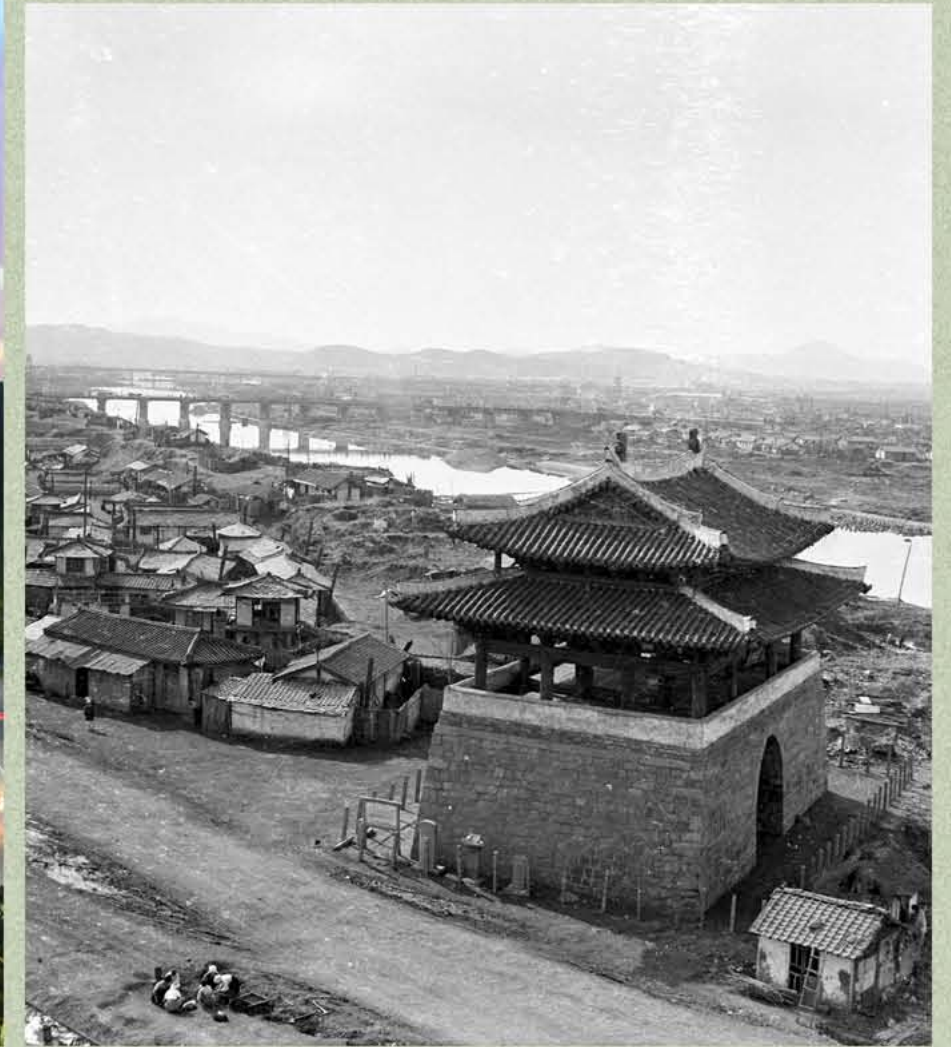
특히 수도건설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보통강반을 따라 천리마거리, 락원거리, 창광거리 등이 일떠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청류관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이 솟아올랐다.

보통강반의 변천은 새 세기에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보통강의 풍치와 어울리게 고층 살림집들 그리고 백화점을 비롯한 봉사망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이미 있던 건축물들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였다.

지금도 보통강반은 끊임없이 변모되고있다.

사진 리광성, 안철룡, 송대혁, 공유일
글 강수정

옛 《토성랑》 일대에는 천리마거리, 창광거리, 만수대거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거리들이 일떠섰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1950.6-1953.7.)의 승리를 경축하는 축포가 평양의 하늘높이 터져올랐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은 많은것을 망각의 심연속에 밀어넣는다. 그러나 년대와 세대가 바뀌여도 조선인민은 1950년대초에 이룩된 고귀한 전승업적에 대하여 결코 잊지 않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과 수천만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조국방위전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후 랭전의 시작과 함께 벌어진 자주력량과 지배세력,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최초의 전면전쟁으로서 그 치렬성과 대결의 심각성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그와 함께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을 맞은지 겨우 5년, 국가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용사들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며 영용하게 싸웠다.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시고 비준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7월

군대가 창건된지 겨우 2년밖에 안되는 조선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견결히 맞서 마침내 승리를 이룩한것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했던 기적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아무리 작은 나라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로 뭉쳐 침략자들과 결사적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였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조선의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필승의 신심 안고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이께서 3년간에 걸치는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은 적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짓부시고 전쟁의 주도권을 틀어쥘수 있게 한 원천이였다.

그리고 가렬처절한 전쟁의 전기간 싸우는 군대와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와 같은 동지적사랑과 믿음, 정력적인 령도는 그들모두가 무비의 위훈을 낳게 한 자양분이였다.

인민군용사들은 원쑤들을 무찌르며 단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바다에서 4척의 어뢰정으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였으며 하늘에서도 프로펠라식 전투기로 분사식전투기를 격추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불타는 고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조국의 한치땅을 견결히 사수하였고 불뿜는 적화점을 가슴으로 막으며 적진으로 진격해갔다.

각지에서 인민유격대와 소년빨찌산들이 조직되여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안겼고 후방인민들은 포연속에서 밭을 갈고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 군수품생산을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민족사에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시련을 이겨냈을뿐아니라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전승의 7.27을 안아왔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국주의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주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과 지중해함대의 일부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괴뢰군 및 일본반동들까지 무려 200여만의 병력을 동원하고 무려 1650억US$에 달하는 군사비를 탕진하였으나 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없었다.

전쟁기간 미제가 입은 손실은 태평양전쟁의 4년동안 입은것의 거의 2.3배나 되는것으로서 100여년의 해외침략력사에서 처음으로 겪는 참패였다.

하기에 7.27과 관련하여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은 조선전쟁은

정전협정조인장

《급속히 종결된 전쟁이라는 말을 패배로써 급속히 종결된 전쟁이라고 고쳐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백악관 방송국에 나온 당시의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도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으로 쓰라린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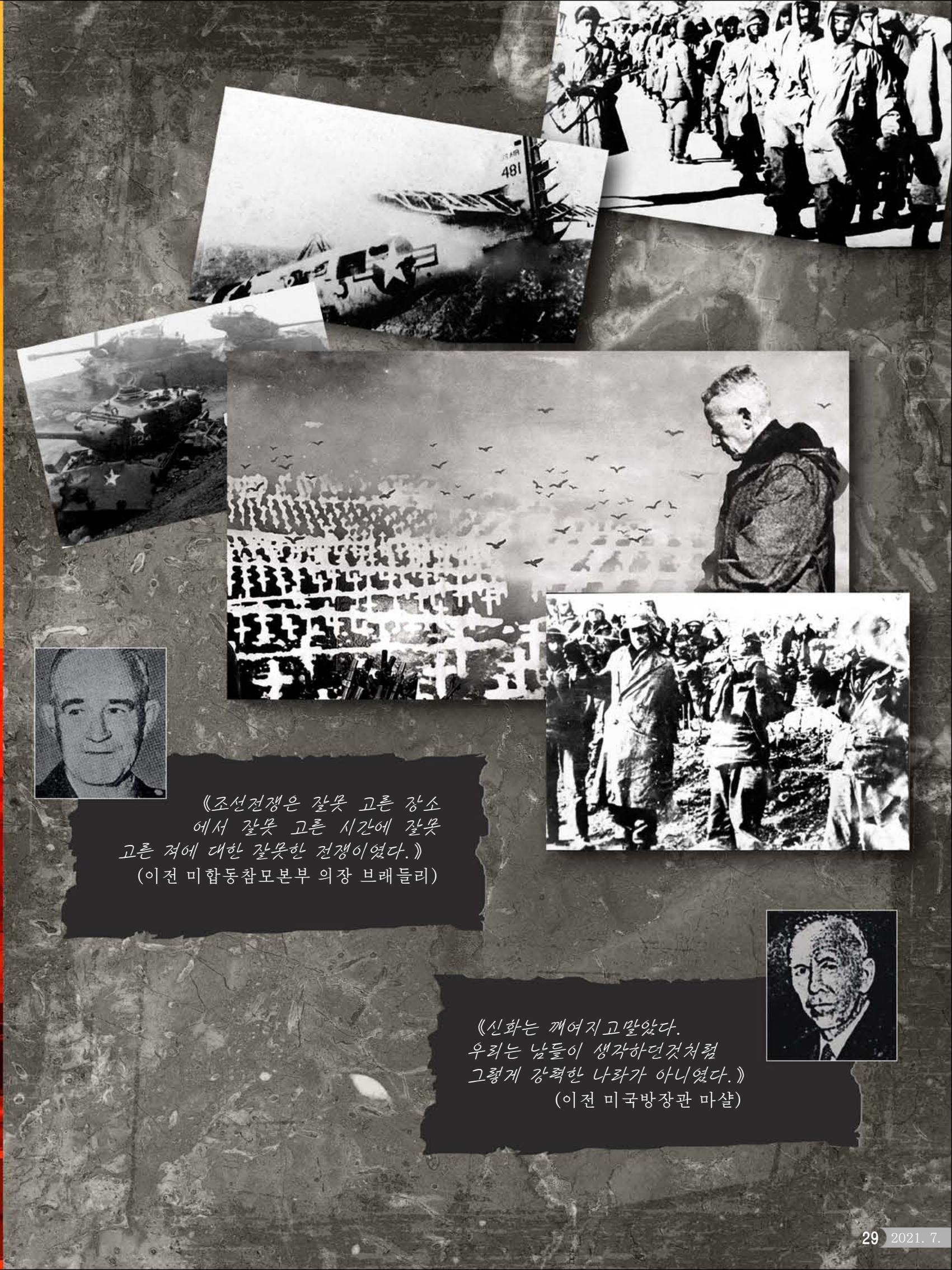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도 《개국이래 미국의 위신이 전세계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진적은 없었다.》라고 개탄하였다.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해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전통과 재부를 마련한 전승의 7.27은 세계의 정치구도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자주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힘차게 추동하였다.

글 최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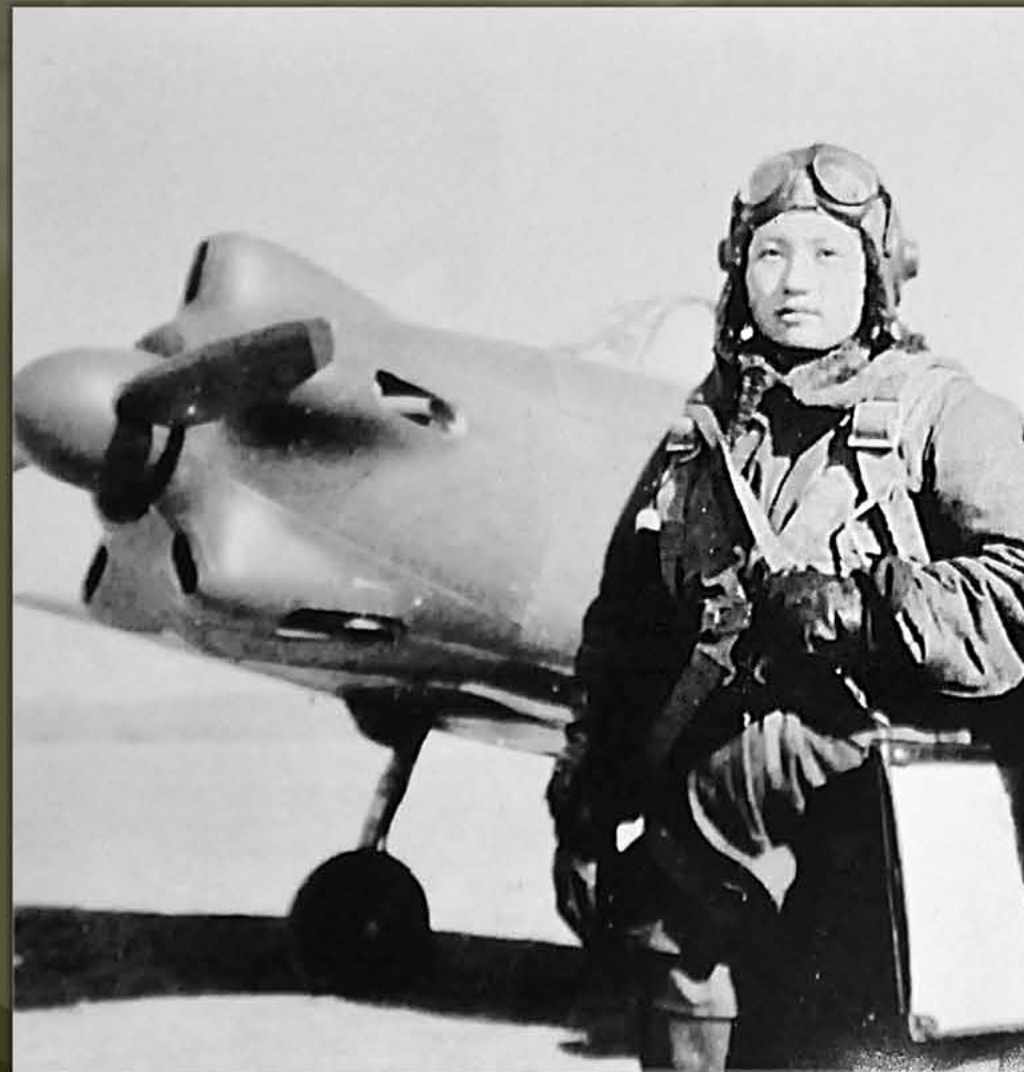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8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신 승리자의 긍지높이 행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심주제조각
《승리》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준공
주체82(1993)년 7월 26일
대돌높이 7m
동상높이 20m
1950-1953
《조선전쟁은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이였다.》
(이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였다.》
(이전 미국방장관 마샬)

《진달래》로 불리운 녀성비행사

최송옥의 위훈에 대하여 전후 외국의 한 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의 산과 들에 만발하는 붉은 진달래꽃은 용감성과 행복의 상징으로서 조선의 녀성영웅들에 대한 존칭으로 되고있다.

조선의 〈진달래〉로 불리운 녀성비행사 최송옥이 나무비행기인 〈у-2〉를 몰고 리승만의 국방부청사를 폭격한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해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7월 27일)을 남다른 감회속에 맞이하는 로병들중에는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에 살고있는 전화의 녀성비행사 최송옥로인도 있다.

그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인 주체24(1935)년 12월 오늘의 함경북도 화대군의 빈농가정에서 태여났다. 2살때 어머니를 잃고 불쌍하게 자라던 그는 나라가 해방(1945. 8. 15.)되여서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하여 최송옥은 이해 가을 집과 아버지까지 잃고 말았다.

그는 누를길 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안고 그 이듬해에 나이를 한살 불구면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공군부대에 배치받게 되자 송옥은 무작정 비행사가 되겠다고 생떼를 써서 지휘관들을 아연케 했다.

끝끝내 그는 같은 지향을 가진 여러명의 동무들과 함께 비행훈련을 받게 되였다. 최송옥은 나이가 16살로서 그중에서 제일 어렸다.

그때까지 자동차는 고사하고 자전거도 타보지 못했던 그에게 있어 다른것도 아닌 비행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훈련과정은 몹시도 힘에 부쳤다.

하지만 최송옥과 동무들은 동요하지 않았으며 서로 고무하면서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해서 8달만에는 비행사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여 전화의 나날에 조선의 첫 세대 녀성비행사들이 나오게 되였다.

최송옥의 부대는 주로 야간폭격전투에 참가하였다.

륙지에서는 무척 얌전하고 내성적이였지만 일단 리륙하여 하늘을 날 때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매와 같은 그였다.

송옥은 전우들과 함께 서울과 김포, 인천 등 적의 군사적요충지들에 무자비한 복수의 타격을 안기였고 마침내 전승의 날을 맞이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수년동안 공군부대에서 계속 복무하였다.

그후 제대되여 국제관계대학(당시)을 나오고 65살까지 대외사업부문에서 사업할 때에도 그는 청춘시절의 기백을 잃지 않았다.

최송옥전쟁로병은 오늘도 새 세대들에게 1950년대의 조국수호자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을 심어주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새 세기와 더불어 더욱 두터워진
조로친선의 뉴대

21세기를 전후하여 조선과 로씨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사이의 상봉과 회담들이 거듭 진행되였다.

오늘도 변함없이 공고발전되고있는 두 나라간의 친선관계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력사적 사실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로씨야국가 령도자의 첫 조선방문

주체89(2000)년은 조로관계발전사에 뚜렷한 자욱이 새겨진 해이다. 이해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사이의 단독회담이 있었다. 주체89(2000)년 7월

특히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이 로씨야의 국가수반으로는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청으로 조선에 오는 외국의 첫 국가수반이기도 한 로씨야대통령은 평양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 기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웨. 웨. 뿌찐각하사이에 뜻깊은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조로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된 회담들에서는 두 나라의 정세가 호상 통보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조로공동선언은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협조와 밀접한 호상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과 호상존중, 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조로공동선언의 채택은 20세기 전반기 항일대전의 공동투쟁속에서 시작되고 연연히 이어져온 친선과 단결의 력사와 전통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의지를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각하께서는 연회석상에서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주체89(2000)년 7월

새 세기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마련된 조로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0(2001)년 7월 26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의 초청으로 로씨야련방 방문길에 오르시였으며 8월 18일까지 이 나라에 체류하시였다.

뿌찐대통령은 고대하던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 방문이 새 세기의 첫해에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온갖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으며 로씨야인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차례에 걸쳐 웨. 웨. 뿌찐각하와 상봉하시고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새 세기에 쌍방의 공동노력으로 세계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백방으로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한해전 평양에서 조인된 조로공동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의지가 표명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 방문과정에 조로모스크바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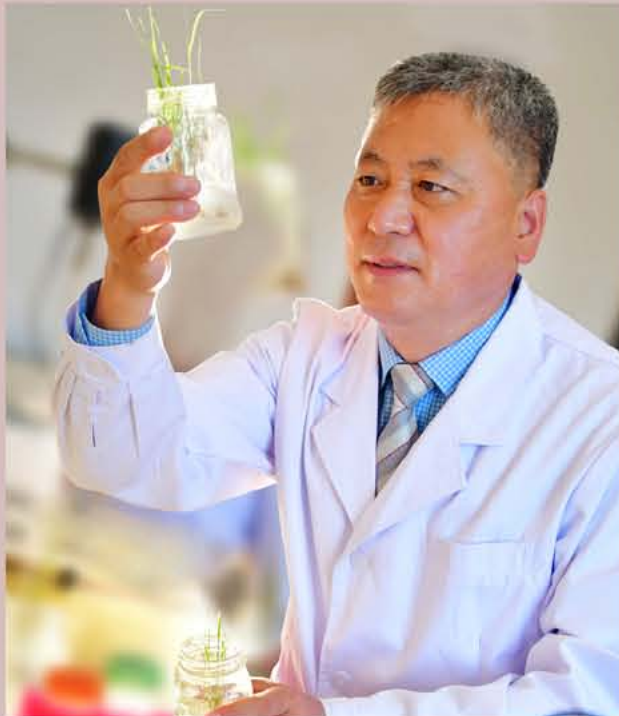
선언에서 쌍방은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선언은 조로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리익,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의 의지와 립장을 국제사회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글 강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사이에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주체90(2001)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각하께서 조로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시고 문건을 교환하시였다.
주체90(2001)년 8월

2020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지식인들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실장 박사 문명철

문명철(51살)과 함께 있는 연구사들은 하나같이 그가 무서운 정열가라고 확언하고있다.

주체76(1987)년 9월 평양농업대학에 입학하던 초기부터 그는 학계는 물론 사람들모두가 아는 훌륭한 농학자가 되겠다는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학생시절에 벼꽃가루집의 배양효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창안하여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수여받았다.

주체82(1993)년부터 농업과학원(당시) 벼연구소 연구사로 사업하면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학계의 가장 큰 경탄을 자아내는 것은 그가 10여년간의 연구끝에 튼튼히 확립하여놓은 조선의 기상기후조건과 지력상태에 맞는 새로운 벼재배방법이다. 오늘날 이 방법은 논벼농사에서 종자와 로력, 물과 영농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것으로 하여 벼생산단위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실장 박사 김광호

김광호(40살)는 조선의 계산대수기하학의 개척자의 한사람이다.

리과대학에 입학하여 학생시절부터 대수기하학연구를 시작한 그는 2진체타원곡선과 산수연산의 고속화에 관한 론문을 발표하여 수학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26살때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계산대수기하학의 리론적기초를 확립하는 과정에 수많은 연구론문들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이 분야에서 공인된 여러건의 미해결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여 학계를 놀래웠다.

오늘 이 분야의 여러 정의와 개념들이 《김-김점두배공식》, 《김-네그레자리표》등 그의 이름과 결부된 학명으로 인용서술되고 있다.

김광호박사는 2022년에 진행되는 한 국제학술토론회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되였다.

올해 43살인 임성진박사는 조선물리학계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중학교시절에 전국적인 프로그람경연에서 특등을 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와 박사원을 졸업하고 자연과학연구원을 거쳐 20대에 박사가 되였다.

현재까지 비선형광학과 관련한 10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을 발표하였다. 그가 집필한 도서들가운데는 도이췰란드에서 발행된 도서 《현대비선형나노광학》도 있다.

주체106(2017)년과 올해에 조선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수여하는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주체107(2018)년과 이듬해에 련속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선정되여 앨버트 넬슨 마퀴스상을 수여받았다.

현재 세계광학협회를 비롯한 여러 학술협회들과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실장 교수 박사 임성진

주체50(1961)년 6월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태여난 채영철의 어릴적꿈은 축산학자가 되는것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중학교졸업후 오늘의 함흥수리동력대학에 추천되여 결국 류체기계학을 전공하게 되였다.

그후 대학의 연구원(당시)까지 거쳐 수십년간 중소형발전소의 타빈날개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여오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던 그는 8년전 대규모발전소들에 리용할 새형의 타빈날개설계라는 뜻밖의 연구과제와 부닥치게 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는 동요하지 않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끝내 혁신적인 설계방법을 내놓았을뿐아니라 생산공정확립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여 나라의 전력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재능우에 량심, 실력우에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것이 채영철의 지론이다.

함흥수리동력대학 동력연구소 실장 채영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천리마타일공장에서-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현대화, 다기능화된 공장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천리마타일공장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장성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열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특히 기술력량을 총발동하여 각종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유약의 100% 국산화를 이룩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그 실현에서 관건적인 프리트를 개발하기 위한 수년간의 고심어린 연구끝에 마침내 기성관념을 타파하고 국내의 원료를 리용하여 질좋은 프리트를 다량생산하는 자랑찬 결실을 이룩하였으며 유약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첨가제들도 새로 찾아냈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그들은 각종 타일들의 질과 생산량을 훨씬 높였을뿐아니라 유면연마타일과 내동성외벽타일 등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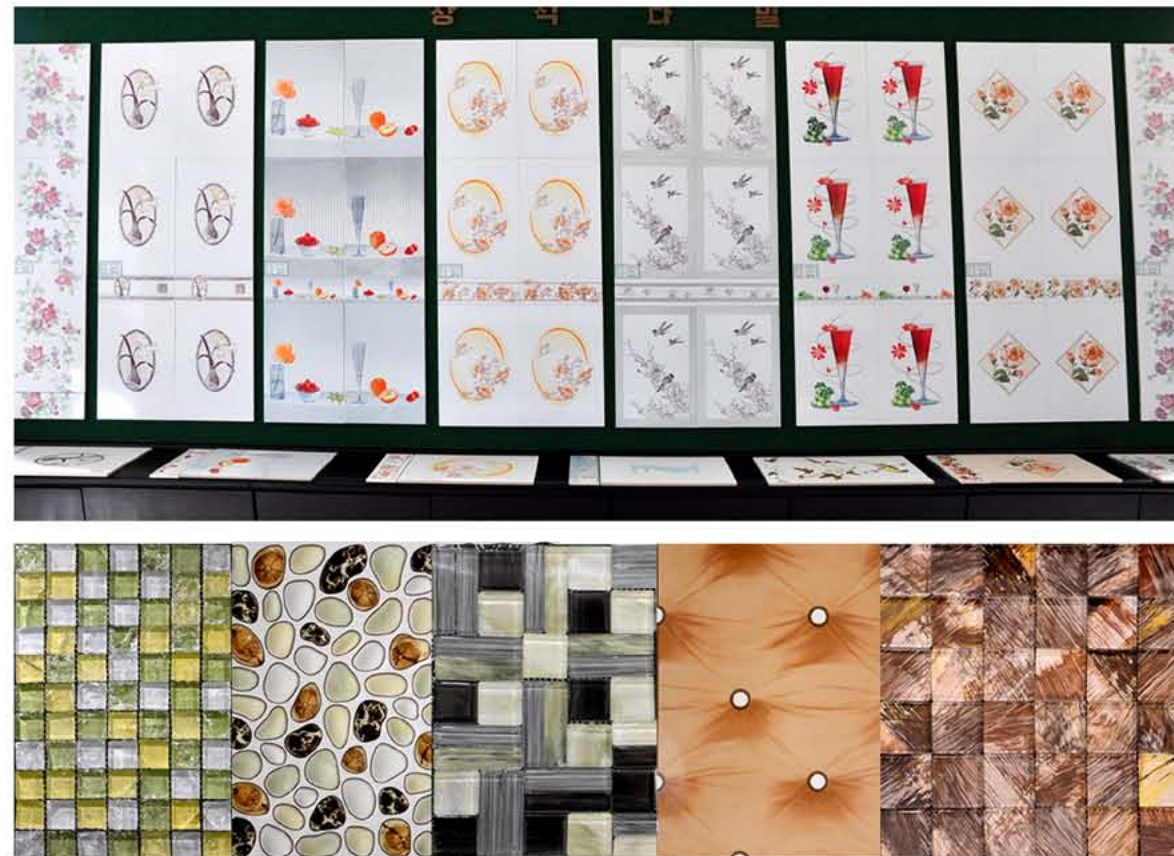
설비 및 동력과에서도 여러 타일생산설비들의 조종프로그람을 훌륭히 완성하여 타일의 만곡도와 투명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수립과 제품의 질제고, 새 타일품종의 개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설계와 제작과 같은 모든 사업들이 공장의 튼튼한 과학기술력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지배인 리홍림은 앞으로도 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영활동을 대담하게 내밀어 공장의 이름을 계속 빛내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살림집건설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제품들의 일부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가 실현된

룡정양어장

황해남도 룡연군에 있는 이름난 천연기념물인 룡정원소의 가까이에 룡정양어장이 자리잡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에게 맛좋은 물고기가 더 많이 차례지게 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60여년전에 첫걸음을 내디딘 양어장은 주체99(2010)년 또다시 종전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수십정보나 되는 넓은 부지에 새롭게 일떠서게 되였다.

원소에서 초당 수백L씩 솟구치는 맑은 샘물을 원천으로 하고있는 양어장에는 실내 및 야외양어못들과 철갑상어알깨우기 및 새끼고기사육장, 물려과장 등과 가열장, 배합먹이가공장, 단백먹이가공장을 비롯하여 양어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있다.

이곳 기술연구집단의 실력도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져있다.

양어장에서는 콤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고 기본생산공정들에 대한 감시와 구역별수질상태에 대한 실시간장악에 기초하여 먹이 및 산소공급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면서 물고기들을 기르고있다.

철갑상어기르기와 관련한 모든 기술적원리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있는 양어장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철갑상어새끼고기들을 자래워 전국의 양어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이곳의 지명을 따서 룡정어라 불리우는 잉어과의 물고기도 바로 이 양어장에서부터 전국에 퍼졌다.

재순환식물공급체계에 의해 13～14℃의 맑고 깨끗한 물이 사시장철 흘러드는 근 160개의 야외양어못들마다에서는 철갑상어를 비롯하여 칠색송어, 룡정어, 잉어 등 랭수성

및 온수성물고기들이 유유히 떼지어 흐르고있다.

양어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물고기기르기를 더욱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양어종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내밀고있다.

최근년간에는 장수어의 서식장을 꾸려놓고 그 마리수를 대폭 늘여가고있다.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룡정양어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힘찬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평천구역 미래동 주일탁아소에서 귀여운 아이들의 즐거움에 넘치는 하루가 또 시작되였다.

주체104(2015)년 수도의 대동강반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새로 일떠서는것과 함께 준공된 탁아소는 비록 연혁은 짧아도 많은 어머니들의 관심을 자아내는 곳이다.

4층으로 된 건물안에는 25개의 보육실들과 잠방, 운동놀이실과 물놀이장, 지능놀이실, 의무실, 아동병동 등이 있다.

탁아소에서의 하루

-평천구역 미래동 주일탁아소에서-

방들은 물론 복도와 계단의 벽과 천정들까지 재미나는 만화와 그림 등으로 장식되여있어 척 보기에도 훌륭한 보육단위라는 느낌이 안겨온다.

조건과 환경도 그러하지만 이곳에 자식을 맡긴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평가하는것은 탁아소보육원들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다.

젖먹이들까지 포함하여 600여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와 건강 및 위생관리를 보육규범과 방역규범을 따르면서도 친어머니심정으로 진행하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는 이곳의 보육일군들이다.

놀이 시간에

어머니들에게는 요람속의 자식을 볼 때가 무척 기쁜 순간이라지만 본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놀음에 몰두했을 때는 어머니도 아랑곳하지 않는 아이들인것이다.

그러니 탁아소의 일과에서도 놀이시간은 아이들의 제일가는 시간이다.

서로 승벽내기로 미끄럼대를 타고 함께 어울려 그네도 타면서 즐겁게 뛰여노는 어린이들.

새침데기같던 처녀애들도 총각애들 못지 않게 사방을 질주하며 좋아라 떠든다.

그런가 하면 지능놀이실에서는 조립식놀이감이며 쪼각그림맞추기, 종이접기 등을 하며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어린이들도 볼수 있다.

장난세찬 아이들의 모습을 보육원들은 무심히 스치지 않고 눈여겨보아가며 소질을 발견하면 그 싹을 키워준다.

이곳에서는 지금 피아노반, 바둑반, 장고반 등이 운영되고있다.

자기 자식은 하루라도 탁아소에 못 가면 서러워한다고, 집보다 탁아소를 더 좋아한다고 어머니들마다 말한다.

탁아소의 해빛밝은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랑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정겨운 미소가 피여나게 하고있다.

사진 방은심, 황정혁, 손희연, 리진혁
글 강수정

아이들의 웃음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기쁘고 즐거워지는것이 아닙니까.

아이들은 가정의 소중한 행복동이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동이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모든 사랑을 다 바칠 때만이 생은 더더욱 의의있고 사회는 더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화원을 펼치고 가꿔가는 사회주의조선에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립니다.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얹고 끝없이 사랑합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유 제품들
Milk products favoured by children
망고우유
250ml
경흥은하수음료공장
망고와 우유의 부드러운 맛
딸기우유
어린이영양우유
바나나우유
향참외 우유
복숭아 우유
강냉이 우유
오일종합가공공장
젖산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천연영양식품

음악신동들을 키워내는 경상유치원

평양시민들은 창전거리에 있는 경상유치원을 가리켜 《음악신동들의 요람》이라고 부른다.

주체43(1954)년 4월에 개원한 조선에서도 비교적 연혁이 오랜 이 유치원은 처음에는 경상동지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전 교육기관이였다. 그러던것이 국가적인 조치에 의하여 1970년대말부터 시안의 조기예술교육단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여오고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일반교육과 함께 조기음악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유치원에는 셈세기와 우리 글을 가르쳐주는 교양실들외에 각종 악기들을 배워주는 전문교양실들이 수십개나 된다.

유치원의 교양원들중에는 예술부문의 대학졸업생들이 적지 않다.

어린이들에 대한 선발은 이곳 교육자들의 선차적인 관심사이다.

그들은 시안의 수많은 탁아소들을 다니면서 남다른 음악적소질을 지닌 어린이들을 찾아낸다.

유치원어린이들의 교육교양과 지능계발을 위한 조건과 환경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경상유치원이다.

4층으로 된 유치원안에는 수십개에 달하는 교양실들, 률동실, 운동실, 종합놀이장, 물놀이장, 잠방, 강당, 식사실 등이 있다.

교양실의 책상, 의자들이며 복도의 그림들 그리고 운동장의 고무깔판에 이르는 모든것에 후대들을 위하는 국가의 시책이 어리여있다.

6·1
국제아동절

부모들도 스쳐버리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음과 장난에서 재능의 싹을 발견하는 높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이곳의 교육자들은 하나같이 재간둥이들을 키우는데서는 천성이 첫째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렇게 선발된 어린이들은 전문가들의 심사와 자신과 부모의 희망에 따라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기타 등 6종의 악기들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배우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매 어린이들은 4명의 교양원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한다.

한명은 일반교육을 주는 교양원이고 다른 한명은 해당 악기를 전문으로 배워주는 교양원이다. 률동을 전문으로 배워주는 교양원과 청음, 시창을 배워주는 교양원도 있다.

항상 어린이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그들의 성격과 심리, 소질과 지능의 계발정도를 깊이 관찰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교수방법들과 수많은 교편물들을 창안제작하여 교수교양사업에 리용하고있는 이곳 교양원들이다.

그들에 의해 학교전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이바지하는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람 《신비경》이 개발도입되고 전국의 유치원들에 일반화되였다.

주체107(2018)년 이곳 교육자들은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유치원용 전자교과서 《친한 동무》를 개발하였다.

풍부한 교육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있는 전문가들의 지도와 방조속에 유치원시절 2년동안에 거의 모든 어린이들은 재능있는 아동음악가로 자라나게 된다.

경상유치원을 찾았던 스웨리예 스톡홀름음악학원 원장은 이 유치원에 대한 방문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나의 음악생활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되였다, 세계급의 음악유치원을 보았다고 감동을 표시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이곳에서는 국제피아노콩클들에서 특별상과 1등상을 받은 마신아, 최장홍, 유별미, 한수려, 홍수련, 조미래 등을 비롯하여 뛰여난 재간둥이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최근년간에만도 이곳 경상유치원의 나어린 재간둥이들은 주체107(2018)년 10월에 진행된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에서 어은금3중주로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다음해에 진행된 제16차 국제축전에서 또다시 어은금4중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주체108(2019)년 3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3차 크라이네브명칭 모스크바국제피아노콩클에서 상장을 수여받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평양제1음악학원(당시)의 김지원학생도 경상유치원의 졸업생이다.

사진 손희연
글 김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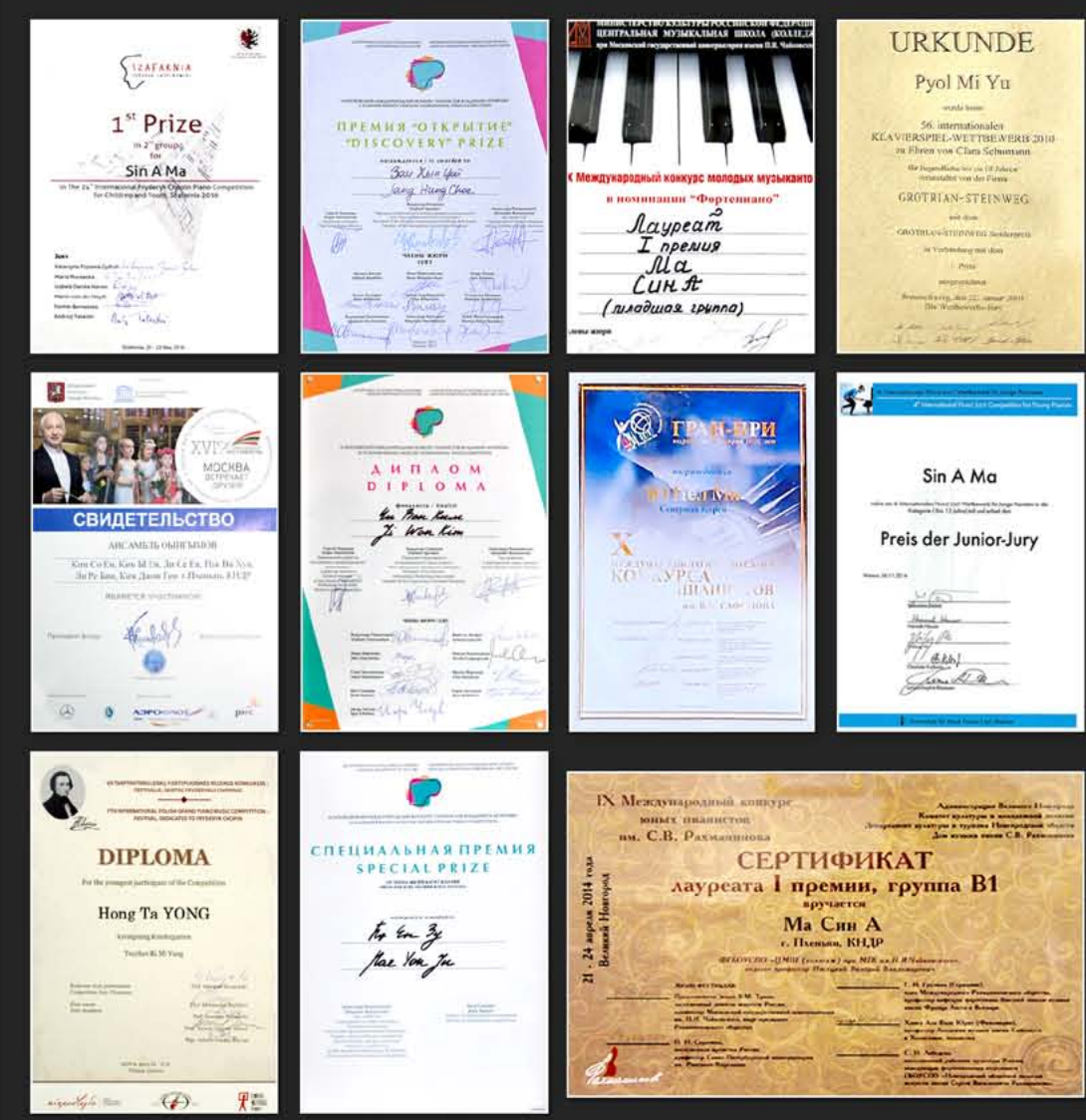
제2차 크라이네브명칭 모스크바국제피아노콩클에 참가한 최장홍

제9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 개막공연에 출연한 기타4중주단

제27차 쇼뺑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특등상을 받은 리권윤

마신아는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10차 국제청소년피아노콩클과 국제음악축전들에 참가하여 뛰여난 연주솜씨를 보여주었다.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에 출연한 어은금3중주단의 신정현, 박예휘, 장예정어린이들

경상유치원어린이들이 국제피아노콩클을 비롯한 여러 국제축전들에서 받은 상장들의 일부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배길수

배길수는 제27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국제체조련맹의 규정을 초월한 최고점수를 받고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조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배길수는 선수생활기간 세계안마왕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가 첫 세계선수권을 보유한것은 주체81(1992)년 4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제27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때였다.

그해 8월 배길수는 제25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안마운동에서도 우승을 쟁취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그가 결승마당에서 펼쳤던 훌륭한 경기장면을 잊지 못하고있다.

신심에 넘쳐 경기를 시작한 그는 한고리에서 두번 휘돌리며 1 080° 방향바꾸어돌리기와 고리 안짚고 3면이동과 같은 고급한 기술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관중들은 물론 국제체조련맹의 심사원들까지도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하여 배길수는 조선의 체육계에서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선수권을 모두 쟁취한 첫 선수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그가 다음해에 진행된 제28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의 안마운동에서 선수권을 쟁취하였을 때 기계체조계는 다시한번 들끓었다.

그후 배길수는 제32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조선의 기계체조분야에서 3중세계선수권을 보유한 첫 선수라는 기록도 새기였다.

어려서부터 국제경기들에 참가한 그에게는 여러개의 우승컵과 30여개의 메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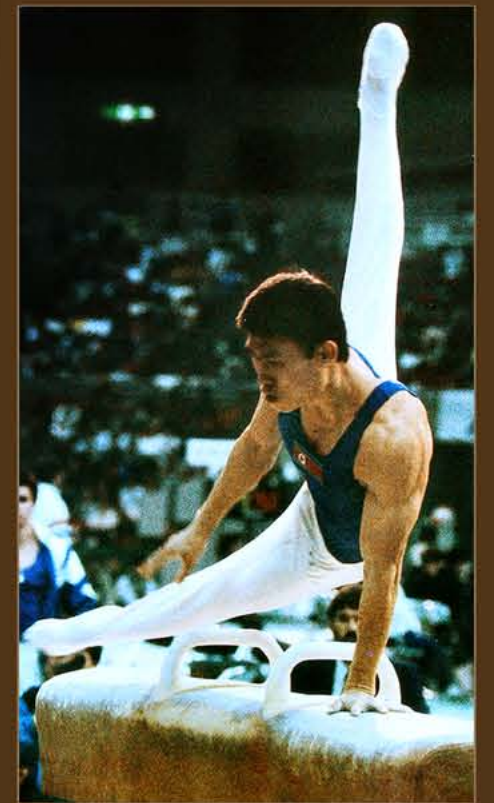
그는 목표를 일단 세우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이악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선수생활 전기간 하루의 훈련계획을 수행 못하고 훈련장을 떠나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가 경기마다에서 펼쳐보여 전문가들과 관중들의 절찬을 받군 하였던 난도높은 기술동작들 하나하나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금메달로 나라의 영예를 높이 떨친 그는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 되였다.

어머니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이자!

이것은 선수생활기간이나 그후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체조협회에서 사업할 때나 그의 마음속에

배길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조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고있다.

굳게 간직된 좌우명이다.

오늘도 그는 체조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가고있다.

그가 가장 크게 관심을 돌리는 문제는 선수후비육성사업이다.

감독들에게 선수후비선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늘 강조하고 적성체질의 선수후비들을 선발하도록 높은 요구성을 내세우고있는 그는 전망성있는 선수후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한달음에 달려가군 한다.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리세광과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와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의 녀자조마운동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홍은정을 비롯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렇게 선발육성된 선수들이다.

사진 리진혁
글 박병훈

Ryuwon Trainers

Light and Durable

가볍고 든든한

류원 운동신발

주체77(1988)년 11월에 창립된 류원신발공장은 맵시있으면서도 질좋은 운동신발들을 전문생산하는것으로 하여 국내에서 명성이 높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의 연건축면적은 2만 4 700여㎡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생산공정과 능률높은 설비들은 생산의 량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믿음직한 과학기술개발력량이 시대적요구에 맞게 운동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담보하고있다.

《류원》상표를 단 공장의 운동신발들은 사람들의 체질적특성과 기술적 및 운동학적 특성에 맞게 설계제작된것으로 하여 구매자들의 한결같은 호평을 받고있다.

지하명승

룡문대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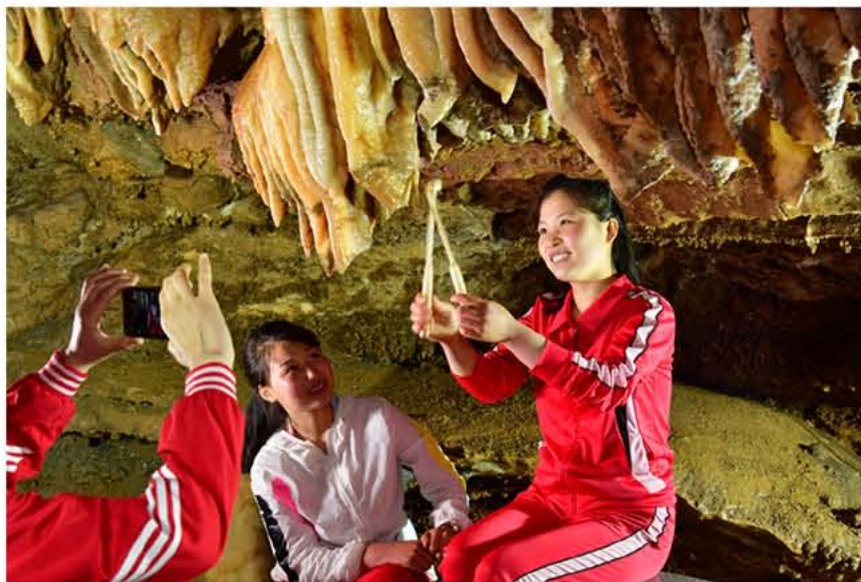
평안북도 구장군에는 2개의 유명한 자연동굴이 있는데 구장읍에서 30여리 떨어진 룡문산에 위치하고 있는 룡문대굴이 그중의 하나이다.

전형적인 석회암동굴인 룡문대굴은 산기슭의 해발 300여m되는 지점에 출입구를 두고있다.

전문가들은 신생대의 빙하기에 룡문산을 덮었던 얼음층이 점차 녹을 때 지층안으로 스며든 물에 의한 석회암층의 용해 및 용식작용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여오는 과정에 지금과 같이 희한한 자연동굴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2개의 원굴과 30여개의 가지굴로 되여있는 동굴은 지난 세기말에 명승지로 훌륭히 꾸려졌다.

참관로정이 연 7㎞에 달하는 이곳에는 관망대, 만물동, 풍년동, 석화동, 백화동, 금강궁, 광명동, 보석동, 형제동, 룡문광장을 비롯한 20여개의 명소들이 있다.

한번 오면 떠나고싶지 않은 희한한 동굴

명소마다에 있는 갖가지 형태의 돌고드름, 돌순들은 지상의 자연현상들과 천태만상의 물상들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풍년동에는 마치 로적가리를 쌓아놓은듯 한 풍년탑과 여러종의 이삭들 그리고 녀성농민의 모습까지 형상되여있고 석화동의 천정과 벽, 바닥들은 온통 서리꽃으로 덮여있는듯싶으며 백화동은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화원을 련상시키고있다.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인 금강산처럼 아름답고 전설속의 룡궁처럼 황홀한 곳이라 하여 금강궁으로 불리우는 명소에는 금강산의 1만 2천

봉을 거꾸로 매달아놓은듯 돌고드름과 돌순들이 기묘한 모습을 펼쳐놓았다.

밤하늘의 은하수와 아름다운 꽃주단을 펼쳐놓은듯 한 천상락원동에는 또한 세면의 바위벽을 스치지도 않고 곧바로 떨어지는 삼선암폭포라고 부르는 높이 30m의 희귀한 지하폭포와 깊이가 3m인 담소도 있다.

하기에 룡문대굴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자연과 세월의 조화가 낳은 지하명승의 풍치에 매혹되여 짧지 않은 참관로정이 어느새 끝나가는지 모른다.

사진 리광성, 리진혁
글 박병훈

지하동굴의 신비경에 심취되여···

인체내의 로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미용효과가 뚜렷하며 뇌수와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대뇌활성제, 피로회복제, 영양회복제

동식물성고단백을 주원료로 하여 특이하게 가공하여 만든 이 제품은 생명체의 생리적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들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배합한것으로 하여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평양대흥무역회사
PYONGYANG TAEHUNG TRADING COMPANY

2 140여년 자란 금야은행나무

함경남도 금야군 동흥리에 있는 금야은행나무는 조선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은행나무이다.

나무의 나이는 2 140여년, 높이는 40여m, 뿌리목둘레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15m이다.

우산모양을 이루고있는 나무갓의 직경은 동서방향으로 약 40m, 북남방향으로 약 50m로서 그늘면적이 약 2 000㎡나 된다.

해마다 수백kg의 열매가 달리며 가을에 떨어지는 잎도 약 2t에 달한다.

금야은행나무는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271호로 지정되여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명

조선의 력사유물

《팔만대장경》

반만년의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문화유물들가운데는 《팔만대장경》도 있다.

대장경은 중세기에 동아시아지역에 널리 파급되였던 불교의 경전을 이르는 말이다.

불교를 국교로 삼고있던 고려(918년-1392년)에서는 11세기에 70여년에 걸치는 대장경출판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되였다.

12세기 후반기에 두번째로 이 사업이 진행되여 대장경의 내용이 더욱 풍부화되였으나 1231년에 이르러 침략자들에 의하여 모두 불타버렸다.

이로부터 고려정부에서는 여러 지역에 출판기관들을 설치하고 1236년부터 시작하여 15년만에 1 539종에 6 793권에 달하는 대장경출판사업을 끝내였다.

이때 판각된 목판들의 수가 8만여매나 되였으므로 경전의 이름이 《팔만대장경》이라 불리우게 되였으며 이 목판활자와 목판본이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목판의 재료는 후박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이다.

매 판목은 너비 24㎝, 길이 69.6㎝, 두께 3.7㎝의 크기로 되여있고 거기에는 한줄에 14자씩 22줄의 글자를 새기였다.

글자의 크기는 대체로 1.5㎠이며 판목의 무게는 2.4～3.75㎏정도이다. 그러므로 8만여매의 목판의 무게는 무려 240t이나 된다.

목판의 네귀에는 청동띠를 둘러 못으로 고정시켰고 목판이 틀어지지 않도록 량쪽끝에 나무기둥을 덧댔으며 판자의 겉면에는 옻칠을 하여 오래동안 썩지 않고 좀벌레도 먹지 않게 하였다.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불교신자들속에서 기본경전으로 광범히 리용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다른 나라들에서 그것을 구하러 수많은 사신과 불교승려들이 오갔다고 한다.

《팔만대장경》은 내용이 방대하고 정확하며 목판활자의 조각술이 매우 정교할뿐아니라 대장경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된것으로 알려져있다.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목판본은 주체72(1983)년 묘향산력사박물관에 훌륭히 꾸려진 《팔만대장경》보존고에 소중히 보관되여있다.

사진 송대혁, 공유일
글 김선경

《팔만대장경》보존고

화보【제품소개】
《통일181》형궤도전차
"Thongil 181"-model
Tramcar
1044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naenara.com.kp
www.minzu.rep.kp
www.youth.rep.kp
www.korean-books.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mfa.gov.kp
www.kftrade.com.kp
www.kiyctc.com.kp
www.korart.sca.kp
www.mirae.aca.kp
www.korfilm.com.kp
www.cooks.org.kp
www.friend.com.kp
www.sdprk.org.kp
www.korelcfund.org.kp
www.tourismdprk.gov.kp
www.ma.gov.kp
www.pulbora.edu.kp
www.airkoryo.com.kp
www.fia.law.kp
www.manmulsang.com.kp
www.koredufund.org.kp
www.korstamp.com.kp
www.gnu.rep.kp
www.kass.org.kp
www.mediaryugyong.com.kp
www.gpsh.edu.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ryomyong.edu.kp
www.knic.com.kp
13606-2180134

녀성들의 건강과 권리를 중시하자

Rights and Choices are the Answers: Whether baby boom or bust, the solution lies in prioritizing the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of all people

7. 11.

세계인구의 날

World Population Day

냰곳:© 조선화보사 2021 주소: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 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